

한경협 ESG Bulletin

2024. 05 | 제 3 호

K-ESG 얼라이언스 사무국에서는 회원서비스 강화와 ESG 저변 확대를 위해 한경협 ESG경영자문단이 ESG 핵심 이슈에 대해 꼭 짚어 설명드리는 'ESG Bulletin'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사례 PICK 3

 LG전자 ·  SK 이노베이션 ·  OCI Holdings

정승환 매일경제 재계·ESG 전문기자
(한국경제인협회 ESG경영자문단)

날이 갈수록 기업들의 ESG 경영 프로젝트가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ESG 분야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는 'ESG 상생협력', '스코프3', '공급망실사',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 등이었다. 이번 호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LG전자, SK이노베이션, OCI홀딩스 사례를 정리했다.

LG전자 | 협력사 대상 탄소배출 감축 컨설팅으로 상생협력 강화

LG전자는 최근 협력사에 탄소배출 감축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ESG(환경·책임·투명경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3자 검증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협력사 부담을 줄이고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LG전자는 2030년까지 공정 개선, 에너지 절감 기술 도입, 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생산단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54.6% 저감하고, UN의 탄소배출권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도 이어가며, 스코프(Scope)3 카테고리 중 제품 사용단계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고객이 주요 7대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20% 줄인다는 목표를 이행 중으로, 이는 국내 가전업계 최초로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인 SBTi 인증을 받기도 했다. 스코프3는 협력사가 발생시킨 탄소 등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한 모든 탄소배출을 의미한다.

LG전자는 이같은 탄소배출 저감 노하우를 협력사도 활용하도록 올해부터 협력사 15곳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오는 6월까지 컨설팅을 진행한 이후 개선 방안을 도출해 실행한다. 사전 조사부터 측정·진단, 개선방안 도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등 전 단계에 걸친 컨설팅을 통해 생산 공정 중 에너지 소비가 많은 설비에 대한 관리 체계를 분석하고 설비 효율 개선과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협력사의 ESG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자 제3자 검증(Audit)도 확대한다. 지난해 2개국 50개사에서 진행한 제3자 검증을 올해부터는 8개국 72개 협력사에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LG전자는 지난 2021년부터 협력사 대상 제3자 ESG 리스크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LG전자는 공급망 탄소배출량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리 강화를 위해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 완료했다. 새로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은 협력사의 탄소배출량을 관리하고 결과를 요약해

보여준다. LG전자는 이를 DB(Data Base)로 구축해 공급망 탄소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탄소감축과 저탄소 관련 신기술·재생 에너지 전환·에너지 저감에 필요한 설비 투자 등을 위해 지난해 1000억 원 규모의 ESG 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반성장·ESG CEO 세미나 등 협력사 ESG 역량 강화 총력

SK이노베이션도 협력사 ESG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울산 SK행복타운에서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엔무브 등 SK이노베이션 계열과 거래하는 협력사 80여 곳을 초청해 '동반성장·ESG CEO 세미나'를 개최했다.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SK이노베이션 계열의 협력사 ESG 경영 현황을 소개하고, '제3차 ESG 우수협력사 인증·포상'을 진행했다. 우수협력사로 선정된 37개 협력사에게는 인증패와 SK이노베이션의 ESG 컨설팅 이용권이 증정됐다. 우수협력사는 ESG 컨설팅 이용권을 통해 ISO 인증,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이자 지원과 ESG 평가 담당자 대상 12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 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22년부터 협력사의 자발적인 ESG 역량 강화를 독려하고자 ESG 우수협력사를 인증·포상해왔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ESG 우수협력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포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SK이노베이션 실무진들은 SK이노베이션의 협력사 ESG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올해는 공급망에 대한 ESG 리스크 실사와 공시를 의무화한 'EU 공급망 실사 지침' 가결에 따른 영향과 이에 따른 SK이노베이션 계열의 업무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협력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은 협력사들의 ESG 경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ESG 컨설팅 및 리스크 평가도 시행하고 있다. ESG 컨설팅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인사노무 종합진단, 2차 협력사 ESG 원데이컨설팅 등을 주제로 올해 3월부터 진행 중이며, 6월부터는 ESG 리스크 진단을 위한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평가결과 개선필요 등급을 받은 고위험 협력사는 개선 계획 수립과 개선 이행 활동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OCI Holdings | 지속가능한 글로벌 사회공헌으로 글로벌 ESG 평가 A등급 받아

글로벌 차원에서 ESG경영에 나선 한국기업도 있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최근 "OCI홀딩스는 일회성 사회공헌이 아니라 현지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특성에 맞게 현지화된 사회공헌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OCI홀딩스는 자회사 OCIM이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장애인 교육을 후원하며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을 증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 OCI홀딩스와 OCIM은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서 지난해 11월 지적장애인 교육 전문학교 '퍼카타 사라왁'과 장애인 교육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지 사회적 기업 '그린 제너레이션'과 함께 지역사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OCI홀딩스는 또한 말레이시아 사업 확대에 따라 현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OCI홀딩스는 장애인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다. OCI드림 소속 장애인 직원들은 서울 OCI 본사 1층 카페 '썬더버드'에서 일하고 있다. 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OCI드림앙상블도 있다. OCI드림앙상블은 최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공연을 했다. 이날 연주는 OCI홀딩스의 미국 자회사 미션솔라에너지(MSE) 1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이 같은 ESG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OCI홀딩스는 지난해 MSCI가 주관하는 ESG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 2021년 BB등급을 받은 이후 2022년 BBB등급, 이번에 A등급을 기록해 최근 3년간 매년 한 단계씩 상승했다.